

남과 북 '하나로'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향해 출발할 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남북정상이 55년만에 만나는 사실만 해도 역사적인 일이라 생각하였다. 구체적인 성과와 약행을 버리고 도를 닦는 사람, 둘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중병을 얻어 죽는 것을 보고 도를 닦는 사람, 셋째는 자기 친척이 병들어 죽는 것을 보고 도를 닦는 사람, 넷째는 자기가 가까이서 보좌하던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서 비로소 도를 닦으려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 네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셨다. 첫째는 만 마을의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문만 듣고서도 세속의 애착과 악행을 버리고 도를 닦는 사람, 둘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중병을 얻어 죽는 것을 보고 도를 닦는 사람, 셋째는 자기 친척이 병들어 죽는 것을 보고 도를 닦는 사람, 넷째는 자기가 가까이서 보좌하던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서 비로소 도를 닦으려는 사람이다.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소치는 다이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미 밥도 짓고 우유도 짜놓았습니다. 마히강 기슭에서 나는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움막은 지붕이 덮여 있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여, 만일 비를 내리시려거든 비를 내리시옵소서."

똑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번만큼은 다이나처럼 철저히 신속한 사전대비가 있어야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차이를 크게 극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에 합의하고(3항) 경제협력 및 제반분야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한것(4항)은 두 정상 이 원칙의 합의만이 아니라 이를 가시화 하는 구체적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당국자 대화의 재개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합의는 이번 정상회담과 합의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남북양측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는 곧 이어질 당국자 대화와 분야별로 전개될 남북회담을 통하여 정상간에 합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세부사항에 합의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당국자 회담, 연락사무소 재개, 핫라인 설치,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8.15를 즈음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관계 화해 분위기를 더 한층 고조시킬 일들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미지수로 남은 것은 그러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할 대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상회담을 환호한 그러한 정도로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온 정도로 북한주민들에게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이 이미지를 구축했는지는 의문이다. 그들의 TV에는 김 위원장의 발언조차도 보도되지 않지도 철저히 언론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 남북정상회담이후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김대중 대통령이 출발 전 성명에서 밝힌 바 있는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 그것이 다. 뜨거운 민족애와 통일 의 열의를 간직하면서도 남북한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통일방안에 대해 접근을 본 것은 그동안 자주의 원칙에 대한 해석과 통일방안을 둘러싼 남북간 견해

를 더 한층 고조시킬 일들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미지수로 남은 것은 그러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할 대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상회담을 환호한 그러한 정도로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온 정도로 북한주민들에게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이 이미지를 구축했는지는 의문이다. 그들의 TV에는 김 위원장의 발언조차도 보도되지 않지도 철저히 언론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 남북정상회담이후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김대중 대통령이 출발 전 성명에서 밝힌 바 있는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 그것이 다. 뜨거운 민족애와 통일 의 열의를 간직하면서도 남북한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통일방안에 대해 접근을 본 것은 그동안 자주의 원칙에 대한 해석과 통일방안을 둘러싼 남북간 견해

경기 북부·강원 수해예방공사 지지부진

장마철 물난리 재발 우려

기상청 "장마 이달 하순 시작"

수년째 물난리를 되풀이해온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방의 수해예방 공사가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곳곳에서 차질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장마철을 앞두고 올해도 대형 물난리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해 큰 피해를 입었던 동두천시의 경우 12곳의 배수펌프장 중 7곳만 완공 전까지 공사완료가 가능할 정도다. 그나마 이 공사도 올 3월에야 시작돼 졸속공사에 따른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6년 이후 3차례나 침수를 겪은 파주시 일대로 9곳 중 4곳만 완공 전에 접수방지공

사를 끝낼 수 있다고 하고, 이밖에 남양주시와 연천군 등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은 철원 화천 등 강원 북부 지방도 마찬가지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수해 4318건 중 5월말 현재 3203건만 복구가 완료됐을 뿐 나머지 1115건은 아직도 진행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장마는 예년보다 빠른 6월 하순에 시작된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매년 수해를 겪으면서도 이제 와서 예산 타령이나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가뭄에 도랑 천다"는 말이 있듯이 사전대비만큼 안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우

리는 어느덧 소를 잃고도 외양간도 고쳐주지 않는 간 큰(?) 국민이 왜 버렸다.

이런 불교 우화가 있다. 어느날 한 스님이 제자를 데리고 뚝을 산책하는데 때마침 일진광풍이 일어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다. 스님이 그 낙엽을 한 장 주위 소매 속에 넣어 이를 본 제자가 "스님, 비로 쓸어낼 터이니 그만 두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스님은 "이 멍청한 놈아, 곧 쓸겠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뚝이 깨지지 않겠느냐"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스님은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면서도 해마다 수해를 당하는 것은 말로만 뚝을 치우겠다는 제자의 행위와 같은

전문성 무시 국회 상임위원장

나뉘먹기식 감투

최근 여야가 내놓은 국회 상임위원장 내정자 명단을 보면 정치개혁은 둘째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배치는 정당의 당직과는 달리 무엇보다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몇 명의 내정자를 제외하곤 전문성을 고려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측근 우선이나, 영입과 배려, 비주류 포용이나 하는 당리당략만 따져 그야말로 '나뉘먹기'식 인선으로 일관했다.

약사출신으로 보건복지위에서 3선을 지낸 의원이 정 보위위원장에, 건설교통위에 있던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장에 내정되고, 통일문제에 관한 의정경험이 없는 인물이 통일외교통상위원장에 내정된 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

(사십이장경)에 "악이 있어도 잘못임을 알아서 과실을 고쳐 선을 행한다면, 죄가 절로 스러져, 후일에 가서는 꼭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는 말이 있다. 지금이라도 전문성을 살린 재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다.

교육감 선거 혼탁

첫 직접선거... 시민단체 '감시'

얼굴이 단정하고 기품이 있어 보이는 한 신사가 부처님을 찾아와 여쭙는다.

"어떻게 해야 명예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덕망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계율을 지키고 덕망이 높아지고자 한다면 진실한 삶을 사시오"라고 답했다. (잡이합경)

최근 충남과 전북 등 각 자치단체에서 처음 직접선거로 치르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항을 제공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상호 비방과 관계개입 등 갖가지 타락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자 이를 보다 못한 시민단체들이 불법선거 운동을 적극 감시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서기까지 했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다. 덕망이 높고 모든 행위가 진실한 사람이라면 얻을 수 있는 자리다.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대로 선거 질서(계율)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옳고 곧은 행동으로 덕망을 쌓아 나가야 한다.



"통일" ... 간절한 소망
"통일이여 어서 오라" 역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13일, 임진각을 찾은 한 할머니가 통행제한구역 철조망 앞에서 통일을 기원하고 있다.

집세 대신 내준 어느 판사의 판결

지난 9일 미국 버지니아주 패어 팩스 카운티 법정. 귀머거리 부부가 월세 630달러 중 250달러를 못 내니 이들을 쫓아내달라는 아파트 회사측 변호사의 고소를 들은 도널드 맥도너 판사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기 사무실에 가서 100달러짜리 지폐 2장과 50달러짜리 지폐를 들고 와서는 "집세가 지불된 걸로 생각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제 아파트 회사측 변호사는 "250달러는 한 달치 밀린 집세에 불과하다"며 이들을 내쫓아야 한다고 판사의 "중재인"을 거부했다. 한동안 아무말 없던 판사는 "나머지 집세도 내가 내겠다"고 말하고는 사무실에서 현금을 가져와 다시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변호사는 정회를 요청했지만 판사는 사건이 끝났다고 판결했다.

맥도너 판사의 판결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의 지혜'를 생각해 본다.

보살의 지혜는 온갖 사물이 돌아가 의지할 곳이다. (유일 마니보경)은 보살의 지혜를 일러 "큰 산의 여러 약초는 그 산마루에 나뉘 주인이 없고, 환자를 따라 여러 병을 다 고친다. 보살도 이같이 '지혜의 약'을 가지고 사방 천하 사람의 생로병사를 고쳐준다고 말하고 있다. 맥도너 판사와 같은 보살이 우리 사회에서도 아

쉽기만 하다.

순수한 평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빛을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공을 무세요!"

손 꼭 소중히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사)그림, 佛자 그림(수액과 차단) 특별보시!
정품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佛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액과 발지 흥원회 인종 100% 호화
특수명품용어 주유하기 바랍니다.

▶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mahamall.co.kr

사업설명, 가격분류, 자문문제, 부부상담 등 담당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FAX (02)2242-0255
E-mail : unjang21@kornet21.net

● 주문 신청방법 서울은행 28707-0452510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불교음악을 선도하는 - 한국불교음악협회

불교음악캠프

전국 불교음악인의 모임인 한국불교음악협회에서는 불교음악의 저변 확대와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기 2544년 여름 불교음악캠프를 마련합니다. 천년 고찰에서 전문 음악인의 알찬 강사로 마련된 음악캠프는 불교음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 기간 : 2000년 7월 8일~10일(2박 3일)
- 장소 : 전북 원주군 송광사
- 대상 : 불교음악인, 불교음악에 관심 있는 일반인
- 내용 : 친불가 편곡-김동원(중앙대 음대 교수) 친불가 분석과 역사-정부기(중앙대 음대 교수) 외 친불가 지휘법, 발성법 등 불교 신앙과 교리-왕약연(불교교육연구원) 외 불교 인식, 불교의 발전과 전파 등

● 동참비 : 1인 45,000원(차비 15,000원 별도)
● 접수 : 6월 30일까지 팩스나 전화로 접수
● 접수처 : 전화 723-0440/1, 725-7527 팩스 723-0442

한국불교음악협회
총재 정순문

서울시 중로구 관문동 177번지 대영빌딩 303호
전화 (02)723-0440/1, 팩스(02) 723-0442

남여 불교 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 (3개월)
불교학교리(반야심경, 불교성전)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식 씻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식시 등

- 불교예절(교양 상식 계행 언행) 사미율리 초발심 자장의 해설
- 신도5계 득도수계 입실전당 보살계 비구비구니계 해설 및 수계
- 법당 불상 탱화 연단 및 불기구 배치법
- 불공 기도 축원법 (삼보통정 관음지장산중 산신 절성 독성 발원)
- 불교교리 및 불교 역사 중요골자 발취 강의 납골 개설 사업 운영등

●모집인원 : 27명(선착순) ①교리반 9명 ②시율반 9명 ③포교반 9명
●원서접수 : 현재 접수중
●개강일시 : 매월 1월 11월 21일 개강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서명장도국립세계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도, 포교원사출발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 승니, 재가, 불교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월 회비 : 백이거기(숙식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6-27(나드리프라자 4층)
한국불교 정토종 불교대학
전화 032) 543-2693~5

인재(印材) 벽조목

▶ 벽조목의 본래의 의미는
벽각 맞은 대추나무를 의미합니다. 민속에서는 이 벽조목을 가지면 악귀를 쫓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 인재(印材) 벽조목은 가공 압축된 대추나무를 가르킵니다

이번 「능예시」에서는 「인종」인 벽각맞은 대추나무를 가공 염주와 벽조목 부속 등 소양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악귀를 쫓고 가정에 평화를 이루며 자신에 건강을 지켜주는 벽조목을 인연 있는 몇몇께 인연을 지을까 합니다. 능예사로 연락주시면 진품 벽조목과 가짜 벽조목을 직접 확인 작업과 아울러 진품 벽조목을 가릴 수 있는 방법도 알려 드립니다. 진품 벽조목의 작은불사에 뜻있는 여러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실제 벽각맞은 대추나무 원목 (전기가공이 아님)

가공형태의 도장

가공형태의 목걸이

가공형태의 단주

▶ 문의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농리 63-1
0355)832-4122 019)377-3788

능예시 주지 이법조 합장